

광주시 재정 비상... 체납액 징수·지방채 발행 검토

부동산·경기 침체에 세수 급감...상반기에만 1134억원 줄어 국회에 국비 증액 요청·여야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등 총력

부동산 침체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 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광주시의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국비 증액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채 발행이나 체납 세금 징수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년 동기 대

비 1134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지방세 감소 부분을 예상하고 내년 광주시 예산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세수 감소의 주된 이유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양도세 등의 감소를 꼽았다. 광주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조2755억원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1조899억원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34억 원 감소한 금액이

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는 지난해 대비 2515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월분 포함 지방세 체납액은 총 5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모두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압박·폐업·부도에 따른 징수 유예, 납세 태만, 행방불명, 재산 없음 등을 이유로 체납 중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1000만원~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은 86명 ▲5000만원~1억원 미만은 68명 ▲1억원~3억원 미만은 22명 ▲3억원~5억원 미만 3명 ▲5억원 이상은 1명으로 집계됐다. 강 시장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제 징수를

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강제 징수를 발동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별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광주시는 체납세금 징수 업무 강화와 함께 법정 경비, 계속 사업비 등 높은 의무 지출 비중을 고려하면 지출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과 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가 올라가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지방채 발행, 금융권 차입 등을 놓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각 부처에 통보됐다"며 "광주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어떻게 담겼는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적게 담긴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어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다음 달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하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무더위 속 연꽃 만개 21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호수공원에 초록의 연잎들 사이로 연꽃이 만개해 산책하는 이들의 더위를 잊게 해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한국형 AI밸리 도약' 역량 결집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실증도시 구현·2단계 방향성 등 논의

광주시가 '한국형 인공지능(AI) 밸리'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역량을 모은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인공지능밸리로 도약하기 위한 2단계 사업 고도화에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산업위원회는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법정기구다. 광주 인공지능발전위원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 기술 및 융합 지원 ▲인공지능기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시장과 이길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을 비롯해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1단계와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기획용역 추진현황 보고, 의견수렴,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심의 등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인공지능 실증도시 구현, 시민 체감형

등 2단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2020년 시작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1단계는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등으로 분개도에 오른 만큼 한국형 인공지능밸리로 도약하기 위한 2단계 사업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1단계 사업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과 실무 인재양성에 주력했다면,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확보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기반시설 고도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확보 및 실증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지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양 축은 인공지능과 미래차인 만큼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꼼꼼히 설계돼야 한다"며 "1단계 사업의 최대 성과인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한국형 인공지능밸리로 도약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전남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 구축

내년 시범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 상담·교육

전남도내 은둔형 외톨이의 절대 이상이 4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가 전체의 4분의 3에 달했다. 전남도가 지난해 자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남 지역 은둔형 외톨이는 남성 187명, 여성 56명 등 모두 2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는 18~30대 이하 21.5%, 40대 22.6%, 50대 37%, 60~64세 이하 18.9%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회와 단절된 채 소외된 고립·은둔 중인 도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은

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연계하고 포용하는 은둔 없는 전라남도'라는 비전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HOL(홀로)-STOP(스톱)'이란 전략목표를 세워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사람과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환경관점을 반영한 4개 영역으로 나눠 총 34개 중점과제를 발굴했다. 영역별로 개인상담, 예방교육, 직업훈련 프로그

램 등 미시체계(Personal),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등 중시체계(Network), 가족 대상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 운영 등 외체계(Family & Local),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거시체계(Governance)로 나눠 추진한다. 전남도는 시범사업으로 2024부터 '전남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사업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한 대면·비대면 상담, 전문상담사 역량 교육, 누리집 구축 등이며, 도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전남형 특화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에서 발굴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과 관리를 진행한다. /윤현서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이춘문 전 시의원

광주시는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이춘문(사진) 전 광주시의원이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 본부장 등을 역임한 평생교육 전문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이 신임 원장은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원장, 제6대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립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평생교육 전달체

계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허브기관으로 더 많은 시민이 평생교육에 참여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28일 임명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개모집·서류심사·면접심사·결격사유 조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광주시는 이날 이 신임 원장을 비롯해 박현산·강대영·김영호·조승기·전상관·박찬원·김영송 이사와 한상민 감사 등 총 9명을 임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